

# COME & SEE

##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 어버이 주일 예배 Mother'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나의 사랑하는 책(찬234/새199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권조원 장로 2부/권순열 장로 3부/최두현 집사 4부/이지원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어머니의 넓은 사랑(이현철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유아 세례식(3부) Infant Baptism ..... Benjamin Kim **김서우**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누가복음(Luke) 8:26-39 .....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6:14-24
- 말씀 Message .....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Come & See 미라클(5) 귀신 들린 자와 돼지떼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 Solus Christus(20) 다섯 번째 표적: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너 시험을 당해(찬395/새342장), 세상 유혹 시험이
- 헌금/특송(2,3부) Offering Song ..... Hope Orchestra **소망 오케스트라**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 큰 나무를 심는다

## Planting a Big Tree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가 당시 교회 대학부 교사로 섬기셨습니다. 어머니가 대학생 형님 누나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하셔서 밥을 먹이는 날이었습니다. 대학생 형님 누나들 사이에 끼어 같이 밥을 먹고, 식후 같이 게임을 하면서 노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한참 깔깔대고 정신 없이 놀았는데, 그 대학생 형님 누나들이 떠난 후 갑자기 텅 빈 것 같은 집이 왜 그렇게 쓸쓸하게 느껴졌는지,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가슴이 싸 합니다. 손님 치룬 후 텅 빈 교회 마당을 보며 그때 생각이 문득 납니다. 그러나, 그때처럼 쓸쓸하거나 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 것 없고 육안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극히 미약한 존재 같지만, 땅에 떨어져 자라는 시간을 기다리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보금자리를 제공할만한 혜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DMC)가 큰 행사라기 보다는 큰 나무로 자라기 위한 겨자씨를 뿌린 '사역'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이상 손님이 떠난 자리의 허전함을 느꼈던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씨 뿌린 자리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 큰 나무가 되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씨앗은 소박한 우리들의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미션(선교)은 거창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컨퍼런스에 동참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도울 일 없나?' 들여다 보는 작은 호기심에 뿌려집니다. '왜 저 분은 타국에 가서 어렵게 살까?' 문득 드는 궁금함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떠난 빈 자리가 우리의 밭이 되고, 훗날 그 밭에 뿌려진 씨앗이 나무가 되어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입니다.

그 씨앗은 금으로 만든 접시에 뿌려진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흙에 뿌려졌습니다. 매일 생존경쟁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땀내나는 현장입니다. 지렁이 같은 벌레도 살고, 속아내야 할 잔돌들과 잡초들, 그리고 눈 비를 그대로 맞을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말쑥의 씨앗은 바로 우리의 평범하다 못해 형편 없는 흙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님 떠난 마당에서 허전해 하지 않습니다. 먼 훗날, 아주 먼 훗날 어쩌면 그것이 교회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날일 지도 모르는 그때, 어느 한 사람이 큰 나무가 되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여, 너는 모든 열방이 깃들여 그 혜택을 나누는 큰 나무가 되어라!

When I was in middle school, my mother served as a teacher for the college ministry at our church. I remember days when she would invite the college students to our home for a meal. I had so much fun joining the older brothers and sisters for meals and playing games afterward; we would laugh and play until we were breathless. Even now, my heart feels a sharp pang when I remember how lonely the house felt—as if it had suddenly become hollow—after they all left. Seeing the empty church courtyard after hosting guests suddenly brings back those memories. However, I no longer feel lonely or empty like I did then. That is because I now understand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God.

Jesus compared the Kingdom of God to a mustard seed. To the naked eye, it looks insignificant and barely visible, but if you wait through its time of falling into the earth and growing, it eventually becomes a large tree—providing a sanctuary where the birds of the air can rest. I believe this Diaspora Mission Conference (DMC) was not just a big event, but a 'ministry' of sowing a mustard seed that will grow into a big tree. I am no longer that little child who feels empty when the guests leave. I have become an adult who knows how to wait for the seed to sprout and grow into a big tree from the place where it was sown.

Seeds are sown in our humble hearts. Mission work is not the exclusive domain of great people; it begins in the hearts of those participating in the conference. It is sown through a small curiosity that asks,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help?' It is sown through the sudden wondering of, 'Why does that person live such a difficult life in a foreign land?' And it is the equation of the Kingdom of God to see the empty space left by those who departed become our field, and to watch the seeds sown in that field grow into trees in the future.

Those seeds were not sown on plates made of gold. They were sown in the most ordinary soil. It is the sweat-scented reality where we fight fiercely for survival every day. It is our daily life, where earthworms live, where there are weeds and pebbles to be cleared, and where we must endure the snow and rain as they fall. The seed of the Word has fallen into soil that is not just ordinary, but perhaps even poor in condition. That is why I do not feel empty in the courtyard after the guests have gone. Because I believe that one day—perhaps in the far, far distant future when the church celebrates its 100th anniversary—someone will have become a big tree. Beloved Bethel Church, become a big tree where all nations can find rest and share its blessings!

주일설교시리즈

COME & SEE

# 미라클 (5)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 귀신 들린 자와 돼지떼 (눅 8:26-39)

1. 거라사 지역은 어디 있는지 성서지도를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2. 귀신 들림(demon-possessed)과 정신질환은 구별하기 힘듭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귀신 들릴 수 있는지 다음 성경 구절을 참고하여 답해 보십시오. (참고/ 롬 8:9-11, 고전 3:16, 고전 6:19, 요일 4:4)

3. 거라사인의 귀신들린 상태의 죄의 양상을 보면서 현 시대의 영적 상태와 비교해 봅시다.(27절, 참고/ 엡2:1-3, 롬 6:23)

- 1) 후안무치(厚顏無恥) (27a, 참고/ 창 3:7)
- 2) \_\_\_\_\_ (27b)
- 3) \_\_\_\_\_ 하는 괴력 (27c, 29절, 참고/마 8:28, 막 5:5)

4. 귀신들린 거라사인이 밝히는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28절) 나의 고백과 귀신의 고백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5. 돼지 2,000 마리가 호수에 몰사한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1) \_\_\_\_\_
- 2) 거라사인이 더이상 귀신에 의해 잡힌 자가 아님을 보여준다.
- 3) \_\_\_\_\_

6. 구원 받은 거라사인의 모습이 시사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참고 구절을 읽고 답하여 보세요. (35절, 38절 참고/마 27:27-28, 사 53:5, 사 61:10)

■ 적용찬양: 너 시험을 당해(찬395/새342장), 세상 유혹 시험이

선교 후기  
디아스포라 선교대회

# 세계 선교지의 열매가 될 천국 잔치



하나님이 부어주신 주권적 은혜와 성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속에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가 천국 잔치의 기쁨을 남기고 성료되었습니다. 베델교회 설립 50주년이라는 은혜의 희년을 맞이하여, 열방의 최전선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온 선교사님들과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의 목회자들을 우리 품에 모실 수 있었던 것은 베델공동체 전체에 허락된 커다란 영광이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결실은 사역의 무게에 눌려있던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진정한 '쉽과 안식'을 제공한 것입니다. 열악하고 척박한 오지에서

고독과 질병, 영적 싸움을 견뎌온 선교사님들은 성도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육신의 강건함을 회복하고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아가 이번 컨퍼런스는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교적 사명을 재확인하고, 서로의 사역을 잇는 거룩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열방을 향한 선교적 지평을 새롭게 확장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눈물겨운 치유와 회복의 현상이 가능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과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 섬겨주신 봉사자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대회를 위해 휴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집사님, 장로님들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항과 호텔을 오가신 집사님들, 그리고 식당의 좁은 구석에서 정성스

러운 육적 양식을 제공해 주신 권사님들, 병든 육신을 치유의 손길로 돌봐주신 의료 종사 성도님들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섬김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의 간구와 미소가 선교사님들의 가슴 속 눈물을 닦아드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열방을 향한 회복으로 이어지는 기적을 목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기뻐 받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뿌려진 위로와 연합의 씨앗이 전 세계 선교지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빛나는 것들을 환호하고 기억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복음의 최전선에서 견디어낸 그 고독한 시간과 거친 탄식의 숨소리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베델 가족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박원규 장로

사역 간증  
주차팀

## 성전 문지기의 마음으로



받기만 하던 소비자 성도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부름 받았습니다. 안수집사로 세움 받으며 2-3부 예배 주차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차 사역뿐 아니라 3부 예배자인 저는 2부 시간 동안 여러 사역자분들과 교제하며,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 큰 도전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분주한 시기에 짐이 더해진 듯합니다. 그러나 삶의 기반이 되는 이 교회를 지키는 일에 참여한다는 거룩한 부담, 거기서 오는 평안, 그 안에 깃드는 영적 소속감이 오히려 큰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결단할 때 그 풍성하심대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단단해짐을 경험합니다.

주차장은 성도님들이 예배로 들어서는 첫 자리이자 성도 간 첫 대면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선 마음으로 분주함 속에서도 예배 인도자의 자세로 질서를 지키며, 오시는 모든 분들이 평안히 예배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또 다른 즐거움도 있습니다. 평소 다른 팀에서 따로 사역하시느라 부부인 줄도 몰랐던 분들, '이 두 분이 부부셨어요?' 싶은 의외의 커플들을 주차장에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어느 자녀가 어느 가정의 자녀인지 그제서야 맞춰지는 재미도 있습니다. 잠깐씩 엿보는 가족들의 일상의 모습 속에서도 또 다른 은혜를 누립니다.

주일 아침 8시 사역이 가능한 것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돌봐주는 아내 김예지 집사의 동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집이 함께 여호와를 섬겨가는 길, 한 걸음씩 새겨가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상 속에 신앙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큰 부담이지만 우리 부부가 함께 기도하며 힘써 나가려 합니다.

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으로 이 귀한 교회를 지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차팀 팀장 내외분을 비롯한 팀원들, 같이 새 걸음을 내딛는 동기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참해 주시는 아내 집사님들께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때가 아직 낮일 때, 일할 수 있을 때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장한 집사

가정의 달 특집 2

# 금보다 귀한 믿음의 유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빈 적 없는 친할아버지에 대해 이미 오래전 천국으로 가신 아버지로부터 들은 기억이 어렵듯이 납니다. 그때는 깊이 귀담아듣지 못했지만, 얼마 전 한국 교회사 자료에서 친할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접하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는 평안북도 신의주 제일장로교회의 창립 및 기틀을 닦은 초기 핵심 장로로서, 신의주 지역의 근대 교육을 위한 진광학교를 설립하시고, 항일 민족해방운동을 하시다가 일제강점기에 투옥되었고, 출옥 후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하시며 교회와 민족을 위해 큰 족적을 남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일부 후손들은 남한으로 내려왔으나, 흩어져 서로 연락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었고, 저희 가정은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인해 브라질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열여섯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이 낯

설고 막막했던 브라질에서 이민 초기의 삶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은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눈물로 기도하셨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 속에 숨어 울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냈습니다. 부모님은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으셨고, 우리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이 있었고, 온 가족이 돌아가며 금식기도를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현실을 이겨 나갔습니다.

세월은 유수처럼 흘렀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셨고, 몇 해 전 큰형님도 믿는 자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이제는 저 역시 어느덧 노년의 문턱에서 친손자를 안고 기뻐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힘들었던 어린 시절은 오히려 믿음 안에서 제 삶의 가장 귀중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얼

마 전 형님과 누님을 만나 친할아버지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북한에 들어가 할아버지께서 건축하신 신의주 제일장로교회를 재건하자고 함께 약속했습니다. 속히 북한이 열려 신의주에서도 선천에서도 평양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친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남기신 믿음의 발자취를 다시금 깊이 되돌아봅니다.

이선갑 장로



신의주 제일교회, 제2교회  
1911년에 설립된 신의주 제일교회, 사진은 1930년대 초 예배당

가정의 달 특집 3

# 어머니의 계절

지난해 하늘나라로 떠나신 아버지를 그리며 '보고 싶은 아버지께'로 시작되는 편지를 교회 주보에 남길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그 글을 읽어드리며 함께 눈물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불과 일 년 사이 이번 어머니날에는 천국 가신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리며 글을 쓰게 되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이역만리 미국으로 시집가는 큰딸이 늘 걱정되었던 친정어머니는, 제 나이 환갑이 넘어서까지도 깨알 같은 잔소리와 총명한 조언으로 부족한 딸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일 년 반 전 아버지께서 천국으로 떠나신 후 또 한 번 맞이한 어머니와의 이별은 제 삶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병실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께 주님께서는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찾아와 주셨

고, 찬송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를 통해 마지막 순간 천국의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고운 눈에서 흘러내린 뜨거운 고백의 눈물과, 마주 잡은 제 손 위로 떨어지던 은혜의 눈물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겨우내 거실에 자리 잡고 있던 우람한 소철을 발코니로 내보내며 시작되던 새봄맞이 대청소에서는 진두지휘하는 여장부로, 한여름 뽕송뽕송한 이불 빨래를 털어내실 때는 깔끔한 살림꾼으로, 가을이면 나프탈린 향 밴 스웨터를 꺼내 입혀 주시던 패셔니스타로, 손 시린 겨울이면 엄마표 김장김치로 금세 비빔국수를 말아 주시던 황금손 요리사로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사계절마다 가족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이 어머니 날이 다가오니 더욱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무한

한 사랑을 우리 네 형제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여전히 그립지만,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에 평안 가운데 한발 한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아름다운 천국에서 아버지와 다시 만나 두 손 꼭 잡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며 자손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계시 모습을 떠올리면 어느새 따뜻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여서 늘 자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진혜진 권사



교회학교

소망 오케스트라

# 소망의 선율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온전히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고, 그로 인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소망 오케스트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처음 담임목사님께서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대한 비전을 나누어 주셨을 때, 믿음보다 현실적

인 어려움이 먼저 떠올라 '이 일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베델교회를 통해 흘러갔고, 물심양면으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부모님들, 음악을 전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과 합주를 위한 지휘와 편곡으로 섬겨 주신 디렉터님, 전도사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 주시는 많은 분들의 후원과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아이들은 점차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오케스트라는 장애 아이 9명과 아이들을 돕는 봉사자들, 그리고 어머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주 개인 레슨과 함께 토요일마다 2시간 동안 모여 합주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주 연습은 성경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로 시작됩니다. 한시도 가만히 앉아 있기 어려운 아이들이 첫 앙상블 모임에서 집중하여 자리를 뜨

지 않고 행복하게 연습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고,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이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배워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베델교회를 통해 심어지고, 연약한 아이들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 가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오케스트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최 신 권사

교회학교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께

엄마, 아빠께 저는 동건이에요. 엄마 아빠가 저한테 해주신 게 너무 많은데, 저는 해드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먼저 저를 사랑으로 키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제가 짜증을 내고 동생과 싸우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부터는 짜증도 덜 내고 동생과도 더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할게요.

또 항상 저희를 먼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맛있는 게 있으면 저희를 먼저 챙겨 주시고, 엄마는 나중에 남는 걸 드시는데, 이제부터는 엄마가 맛있는 것을 먼저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빠도 매일 학교로 운전해 주시고 우리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고, 집안일도 도와드리면서 더 멋진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요즘은 우리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아요. 엄마가 해 주신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데, 이렇게 우리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저와 함께해 주세요. 엄마, 아빠!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김동건(4학년)

Hello Mom and Dad, Thank you for giving birth to me. I am truly grateful that I can live and praise God together with you. I am also thankful that I was born into a loving



Christian family.

You love me so much because you don't want me to be left out, and you raise me as a Christian so that we can all go to heaven together forever. I am so thankful that you are my parents. You always encourage me to never give up and to keep going.

You never hurt or hate me because you love me. I know I can still improve, especially by not talking back to you. When I was younger, I sometimes thought you scolded me because you hated me, but now I understand it was because you love me and wanted to teach me what is right. So thank you for teaching me, guiding me, and loving me.

황노아(5학년)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화평/온유/성김: 박성권 목사
-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 믿음/새가족/QTin: 조동현 목사
- 은혜/예배/BCA: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예살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살채플: 공병주 목사
- 예살채플: 이형석 목사
- 예살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환우: 정티나 목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살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영관: 오춘란

지역광고

# 베델한국학교 가을학기 등록



2026-2027년도 가을학기 등록 안내 2026-2027 Fall Semester Registration

자녀의 뿌리와 미래를 함께 키우는 곳, 베델한국학교가 2026-2027년도 가을학기 등록을 시작합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자긍심을 키우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사용하며 자신감을 키우고,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리더십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즐겁게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을학기 등록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된 QR 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들을 사랑과 열정으로 지도해 주실 교사분들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 재학생 조기등록 할인: 5월 9일(토)~17일(주일)
- ▶ 신입생 및 일반등록: 5월 18일(월)~29일(금)
- ▶ 문의: 윤주원 장로 (949)892-9512, 황수정 집사 (949)562-5262



###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5월)	5/17: ①부-김광영	②부-곽태일	③부-김도석	④부-김지인
	5/24: ①부-김병수	②부-김건성	③부-김성귀	④부-전혜린
	5/31: ①부-김문식	②부-김성균	③부-김도형	④부-도함준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5,6월) | 5/16: 석민석 5/23: 손세진 5/30: 성주영 6/6: 손수국

강단꽃(5월) | 5/10: 이선옥 5/17: 이인철, 임명신 5/24: 배사라, 송미선 5/31: 선상균, 왕동원, 이인철

###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권석원(치과), 간호사-황선영      다음주 | 의사-박현진(한외과), 간호사-홍정미

###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예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색(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밀알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Happy Mother's Day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부모님, 그 끝없는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깊은 존경과 사랑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어머니 주일 선물 및 가족사진 이벤트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이 정성껏 만든 카네이션을 드립니다. 코트야드에서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을 위해 가족사진을 찍어 드립니다.

◆ 수요저녁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뜨거운 찬양으로 한 주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일시/문의: 5월 14일(수) 저녁 7시 30분, 조광종 집사 (949)706-4168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만나세요!



◆ 'Promises of Purity' 자녀 성경적 성교육 학부모 세미나 성경적 성교육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녀의 정체성과 가치관,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교육입니다. '나이별 성경적 성교육'과 '미디어와의 전쟁'을 주제로 PNG 이진아 대표와 함께하는 귀한 세미나의 자리에 모든 교육부 학부모님을 초대합니다. 일시/장소: 5월 18일(월)-5월 19일(화) 저녁 7시-9시, 비전채플 대상/문의: 교회학교 학부모, 이신대 전도사 (213) 335-9049



◆ B2N 2027 연합기도회 초대 초대교회의 시작점이자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깃든 튀르키예에서 'Blessings to Nations(B2N) 2027' 연합기도회가 열립니다. 열방의 성도가 함께 모여 중동과 이슬람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이사가야 19장의 예언적 성취를 위해 중보하는 귀한 자리에 베델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일시/장소: 2027년 4월 22일(목)-26일(월), 튀르키예 안탈리아, 아스펜도스 원형극장 등록비: 1인당 \$1,000 + 국제선 항공권 or 여행 패키지 등록비 포함 항목: B2N 일정 간 호텔 숙박비, 공항-호텔 이동, 호텔-아스펜도스 원형극장 이동, 아스펜도스 원형극장 입장료 (불포함: 국제선 항공료, 여행자 보험료, 비자 발급비(필요시), 기타 개인 경비 등) 등록 마감: 5월 31일(주일)까지 문의: 코트야드 부스, 이충경 목사 (949)537-6968, 황세헌 장로 (949)648-1907

◆ 소망부 '사랑의 마당 축제' 남가주 지역 발달장애인을 위한 올해 제42회 사랑의 마당 축제가 5월 16일(토), Emery Elementary School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고 가는 길의 안전과 행사 일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재은 전도사 (949)923-7094, 김종곤 집사 (714)450-0015

◆ 2026 소망부 VBS 등록 2026 소망부 VBS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여름 소망부 VBS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함께 누리며 은혜 가득한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일정: 7월 21일(화)-24일(금)

등록: QR 코드

문의: 김재은 전도사 (949)923-7094, 김종곤 집사 (714)450-0015



◆ 제3회 BCA 'LOGOS' 여름 캠프 기독교 고전 교육을 바탕으로 오전/오후 세션으로 나누어, 언어(문법/작문/복클립) 등의 아카데미와 PE, 미술, 음악 등 다양한 활동을 결합한 4주간의 프로그램입니다. 편의를 위해 주 단위 등록도 가능하고 4-5시 애프터스쿨 케어가 있습니다.

대상: 1-6학년(2026년 가을학기 기준) \*sibling discount가 있습니다.

일시: 7월 6일(월)-31일(금), 오전 9시-오후 4시

문의: BCA 사무실 (949)854-4013



◆ 상담해 드립니다 개인 생활과 가정, 자녀 문제 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매주 화요일 상담 협동 목사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행정사무실이나 홈페이지, 큐알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성권 목사 (718)490-9931



◆ 영화 '신의 악단(Choir of God)' 상영 대북 제재로 자금이 막힌 북한 보위부가 2억 달러의 외화벌이를 위해 가짜 찬양단을 조직한다는 내용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음악 휴먼 드라마 영화입니다. (주연: 박시후, 정진운, 태호호 등) 일시/장소/문의: 5월 15일(금) 저녁 7시 30분, 본당, 김병수 집사 (714)308-8574

◆ 목회자 동정 예살채플에서 섬기고 있는 공병주 목사의 안수식이 4월 27일(월)에 있었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 이기민/박은숙 집사의 가정에 아들 이고윤(Koyun)이 4월 29일(수)에 태어났습니다.
- 오늘 3부 예배에 김민국/김보람 집사의 아들 김서우(Benjamin)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박남규 성도님(박지원 성도의 부친, 류하에 성도의 시부)께서 5월 1일(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AWANA(어와나):<ul style="list-style-type: none"><li>-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li><li>- Truth&amp;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li></ul></li><li>■ 중.고등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li><li>-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li></ul></li><li>■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li><li>■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li><li>■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li><li>■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li><li>■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li><li>■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li><li>■ 편집장: 김경자 권사</li><li>■ 기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li><li>■ 사진 기자: 박성곤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li><li>■ 번역: Grace Yi 전도사</li></ul>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SERMON SERIES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COME & SEE  
**MIRACLE (5)**

# Demon-Possessed and the Herd of Pigs

(Luke 8:26-39)

**1.** Please check where the region of the Gerasenes is located using a Bible map.



**2.**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demon possession and mental illness.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Bible verses and answer whether a believer who believes in Jesus can be possessed by a demon. (Ref: Rom 8:9-11, 1 Cor 3:16, 1 Cor 6:19, 1 John 4:4)

**3.** Let's compare the current spiritual state of our modern era by looking at the aspects of sin in the Gerasene's demon-possessed state. (v. 27, Ref: Eph 2:1-3, Rom 6:23)

- 1) Shamelessness (厚顔無恥) (v. 27a, Ref: Gen 3:7)
- 2) \_\_\_\_\_ (v. 27b)
- 3) Effort to \_\_\_\_\_ (v. 27c, v. 29, Ref: Matt 8:28, Mark 5:5)

**4.** What is the identity of Jesus as revealed by the demon-possessed Gerasene? (v. 28) If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my confession and the demon's confession, what would it be?

**5.** What is the lesson given by the incident where 2,000 pigs drowned in the lake?

- 1) \_\_\_\_\_
- 2) It shows that the Gerasene is no longer a person seized by demons.
- 3) \_\_\_\_\_

**6.** What do you think is the message suggested by the appearance of the redeemed Gerasene? Please read the reference verses and answer. (v. 35, v. 38, Ref: Matt 27:27-28, Isa 53:5, Isa 61:10)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